

선전선동 사례연구

나치독일, 중국, 북한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나치독일, 중국, 북한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선전선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보편성은 정권적 차원에서 정권의 장악과 유지에 깊은 연관이 있다. 특수성은 국내외의 환경과 여건, 그리고 지도자의 심리문제와 연관을 갖는다. 본 연구는 사례국가들이 선전선동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선전선동을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하였는지 고찰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해 보면, 선전선동의 보편성은 첫째, 개념의 통합성이다. 선전과 선동은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사용하는 통합의 개념이다. 둘째, 당과 국가 차원에서 조직체계의 완비이다. 셋째, 언론매체의 활용이다. 선전선동의 특수성은 첫째, 지도자를 매개로 한 지속적인 하나의 메시지 전달이다. 둘째, 대중의 동의보다 강제에 치중하는 모습이다. 셋째, 정권 장악 과정에서는 대중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만 정권 장악 이후에는 지도자의 목소리가 커지는 현상이다.

선전선동은 대중여론, 정치와 깊은 연관을 갖는다. 국가의 선전에 일반대중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대중여론을 장악하기 위해 대중을 동원시키거나 통제하는 강제성은 없었는지, 대중들은 국가의 선전에 대해 강제적 동의만 있고 순수한 동의는 없었는지 등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정치와 대중여론, 선전선동의 3각 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1. 서론

일반인들은 선전선동의 개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선전선동은 히틀러(Adolf Hitler), 스탈린(Stalin), 마오쩌둥(毛澤東), 김일성과 같은 독재자들의 전유물로 인식하고 있다. 선전선동에 대한 연구도 비판적인 흐름을 보인다. 이는 선전선동이 독재자들의 정권 유지용이라는 인식에 토대하고 있다. 연구방법도 대중들의 동의보다 강제력에 의한 대중동원과 사상주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선전선동에 대한 비판적인 선입관은 객관적인 연구를 저해한다. 오늘날은 대중정치 시대이다. 정치과정에서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선전선동은 필요하다. 선전선동 개념을 ‘악성중앙’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하는 것이 객관적인 연구의 출발점이다.

나치독일의 히틀러는 선전선동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유지해 나갔다. 상징조작을 통한 선전선동의 방법은 일반 독재국가들과 유사하였으나 선전선동의 조직체계가 현저하게 발전하였다. 중국은 공산독재와 개혁개방을 거치면서 선전선동의 방법을 대중교육과 설득으로 전환하였다. 북한은 선전선동의 방법과 조직체계 측면에서 나치독일과 유사하다. 그러나 분단국가의 현실과 지나친 자주성 강조로 대중들의 동의보다 강제에 치중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나치독일, 중국, 북한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선전선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보편성은 정권적 차

원에서 정권의 장악과 유지에 깊은 연관이 있다. 특수성은 국내외의 환경과 여건, 그리고 지도자의 심리문제와 연관을 갖는다. 본 연구는 사례국가들이 선전선동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선전선동을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하였는지를 고찰한다.

2. 선전선동의 역사적 고찰

역사는 권력의 역사이다. 선전선동의 역사도 권력과 깊은 연관을 갖는다. 역사적 권력은 정치권력, 종교권력, 상업권력 등 세 가지 범주 속에 들어 있다. 권력자들은 권력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대중조작을 하여 왔다. 권력자는 이미 지 상징을 조작·생산해 왔고, 저항자는 의식화작업과 폭로를 통해 권력자와 맞서 왔다.¹⁾

1) 로마제국 및 예수 그리스도 시대

이 시기는 기원전 50년부터 기원후 50년까지 100년의 시기이다. 이 시기 권력과 연관된 선전선동의 주요 인물은 ‘줄리어스 시저(Julius Caesar)’와 ‘옥타비아누스(Gaius Octavianus)’,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이다. 줄리어스 시저는 정치권력을 잡기 전에는 군사작전의 ‘성공담’을 선전으로 이용하였다. 통용화폐의 앞면에는 황제에 대

1) 선전선동의 이론적 검토는 개념과 방법, 조직체계가 핵심이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 속에서 선전선동의 개념과 방법, 조직문제를 모두 담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론적 고찰은 하지 않는다.

한 충성의 표시로 ‘황제의 얼굴’을 넣고, 뒷면에는 시저 자신의 전쟁 승리 표시로 ‘말 타고 다니며 전쟁하는 모습’을 담았다. 정치권력을 잡은 후에는 매월 4회의 개선행렬과 화려한 의식행사, 잦은 검투사 경기를 주관하였다. 정치적 선전구호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Veni, Vidi, Vici)’를 사용하였다. 화려한 휘장과 수많은 칭호를 부여받아 스스로 권위를 세우려는 모습도 보였다. 시저에게 부여된 칭호는 차르, 사제장, 집정관 등이었다. ‘조국의 아버지’와 같은 칭호를 스스로 사용하고 점성술까지 동원해 전설적인 과거를 만들고 현재를 정당화하는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였다.²⁾

옥타비아누스는 대중조작이 아주 뛰어났다. 주로 로마신화의 부활과 점성술을 선전술로 활용하였으며 양아버지인 시저를 이용하여 로마신화의 부활을 알렸다. 점성술을 이용하여 자신을 ‘신의 자손’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연설을 할 때는 셔츠를 찢으면서 대중들의 감성에 호소하였다. 화려한 의식이나 위엄 있는 시가행진으로 위용과 권력을 뽐내기도 했다. 미래의 청사진으로서 로마제국에 평화를 심는다는 계획도 제시하였다. 이는 로마도시민으로부터 호평을 얻었다.³⁾

예수 그리스도는 시저처럼 권력을 가지지 못했다. 선전매체에 대한 지배권도 없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위력은 대단하였다. ‘주제와 상징’을 잘 결합시켜 청중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호소하는 행태를 취했다. 대다수 청중들은 로마제국 또는 위성국의 패잔병과 노예, 그리고 억눌린 사람들이었다. 활동의 장(선전장)은 예배당(지금의 교회)이 중심이었다. 활동의 방법(선전방법)은 주로 은유에 의한 비유법을 사용하면

2) 유일상, 『선전과 여론설득』(서울: 아침, 2001), 205~220쪽 참조.

3) 유일상·목철수 편저, 『세계선전선동사』(서울: 도서출판 이웃, 1989), 20~23쪽 참조.

서 세포식 전도방식을 중시하였다. ‘시각적 상징’이나 ‘문서’를 활용하지 않았으며 고난·순교·죽음으로서 청중들에게 극적인 감동메시지를 보냈다.⁴⁾ 그리스도는 선전선동의 근거와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살아 있을 때 핍박을 받다가 죽어서 고난의 빛을 본다는 예언이 적중하였다. 그러나 시저와 옥타비아누스는 권력을 잡거나 유지하기 위해 선전선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2) 프랑스 혁명의 시대

프랑스 혁명의 시기는 18세기이다. 인쇄술의 발달과 대중들의 교육 수준 향상, 그리고 교통수단의 발달로 선전효과는 이전보다 훨씬 컸다. 나폴레옹(Bonaparte Napoleon)은 군인·정치인으로서 15년 동안 유럽을 지배해 왔다. 사후에 나폴레옹주의인 ‘보나파르티즘’이 생길 만큼 뛰어난 선전가였다. 권력을 잡기 전에는 군인으로서 승전보만 선전하고 패전은 알리는 것을 일절 금했다. 친구의 승전도 자기의 승전으로 포장하였다. 군력을 잡은 후에는 더욱 광범위한 대중조작을 일삼았다. 독특한 머리와 얼굴, 의상스타일로 알렉산더 대왕을 연상케 하고, 로맨틱한 민중의 영웅으로 묘사하기도 하였다. 파리의 개선문을 건축하고 ‘단결과 힘’이 새겨진 주화도 만들었다. 권력을 잡은 초기에는 주화의 앞면에 ‘프랑스 공화국’을 넣었고 뒷면에는 자신의 ‘초상’을 넣었다. 권력상승기에는 ‘프랑스 황제’라는 문구를 넣었다. 결론이 뻔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쳐 이를 공포하는 등 권력을 더욱 공고화하는 선전술도 구사하였다.⁵⁾

4) 위의 책, 26~29쪽 참조.

5) 위의 책, 68~72쪽 참조.

3) 제국주의 및 마르크스 시대

19세기에 자유주의, 사회주의, 민족주의 사상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낭만주의자인 프랑스의 생시몽(Comte de Saint Simon)과 독일의 피히테(Johann Fichte) 등은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구호와 이미지를 생산하였다. 이탈리아의 가리발디(Giuseppe Garibaldi)는 특별한 찬가와 이미지 조작으로 영웅숭배를 이끌었다.⁶⁾ 독일의 바그너(Richard Wagner)는 <황제행진곡>을 작곡하였고 빌헬름 2세(Friedrich Wilhelm II)는 ‘빛나는 갑옷을 입은 기사’의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이는 군국주의와 맹목적 민족주의의 심화·확산을 이끌었다. 대영제국은 국수주의 이미지를 조장하기 위해 빅토리아 여왕의 동상을 모든 식민지 수도에 세웠다. 계몽적 군국주의의 새로운 선전술의 시작이었다.⁷⁾

마르크스(Karl Marx)는 『공산당 선언』에서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⁸⁾는 구호성 메시지를 던졌다. 레닌(Vladimir Lenin)은 마르크스의 계시에 가장 적합한 ‘커뮤니케이션’의 기초를 마련했다.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 ‘강제’와 ‘설득’의 두 가지 수단을 강조했다. 정치권력 획득을 위한 투쟁과 유지 강화에 있어 강제가 필요했다. 공산당 정책의 정당성을 구축하고 대중의 마음을 잡기 위해 설득이 필요했다. 볼셰비키는 러시아 혁명 후 전 세계를 선전으로 정복하기 위해 선전부서를 만들었다. 아시아 국가를 비롯한 외국에서 지도자 자질을 갖춘 인물들을 모스크바로 초청해서 선동훈련을 실시하였다.

6) 유일상, 『선전과 여론설득』, 259~265쪽 참조.

7) 유일상·목철수 편저, 『세계선전선동사』, 75~80쪽 참조.

8) 공산당선언은 프롤레타리아가 권력을 잡는다는 하나의 예언서로서 신약성서 이후 최고의 선전술로 평가받고 있다.

소비에트 정권은 영화를 가장 효과적 선전수단으로 이용했다. 오데사의 무장봉기를 다룬 영화 <전함 포템킨(The Battleship Potemkin)>이 대표적이다. 회화와 조각에서도 영웅적 리얼리즘을 담았다. 우상숭배의 한 형태이다. 건축에서는 예술과 대중조작을 결합한 거대주의적 사상표현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레닌은 개인주의를 스스로 탈피하였다. 스탈린은 제2차 대전 시기 대중을 동원하기 위해 애국주의 선전주제를 부활시켰다.⁹⁾

제국주의는 상업적 부를 위한 영토 확장과 민주제의 가면을 쓴 탄압과 인종차별 등을 선전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자들의 제국주의화에 맞선 선전술을 전개하였다.

3. 선전선동 사례연구: 나치독일, 중국, 북한

사례연구는 나치독일과 중국, 그리고 북한의 선전선동을 비교분석할 것이다. 강제와 동의를 중심으로 해서 나치독일시대 괴벨스(Paul Joseph Goebbels)와 히틀러는 선전선동을 어떻게 전개하였는지, 선전과 정치사상교육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선전선동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리고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이 중심인 북한의 선전선동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9) 유일상, 『선전과 여론설득』, 266~276쪽 참조.

1) 나치독일

나치독일 시대는 크게 세 시기로 구분된다.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하기까지의 과정, 정권을 잡고 통치하는 과정,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파국으로 끝을 맺는다. 나치시대 선전선동의 기본원칙은 히틀러가 1927년에 완성한 『나의 투쟁』에 잘 나타난다.¹⁰⁾ 첫째, 추상적인 관념은 피하고 감정에 호소해야만 한다. 끊임없이 몇 마디 정해진 문구를 반복해야 한다. 결코 객관적이지 않아도 된다. 논의의 한 측면만을 기술하여 적을 격렬하게 비난하되 항상 특정한 적을 하나씩 정해야 한다. 둘째, 언어적·시각적으로 끊임없이 반복해야 한다. 먼저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한 배신자, 다음으로 공산주의자, 그다음에는 유대인을 속죄양으로 비난하고 낙인찍는다. 이런 기본원칙에 따라 나치의 선전에는 ‘국적’이나 ‘11월 혁명의 범죠행’이라는 표현이 여러 곳에 등장하였다. 유대인과 공산주의자들이 경멸의 대상이었다. ‘깨어나는 독일’ ‘천년왕국’ 등의 알기 쉬운 말이나, 봉쇄 지배민족 생활권(lebensraum) 등 정서를 자극하는 용어가 난무하였다. 이성이 아닌 인종증오에 토대한 감정에 호소하였다.

나치시대 선전선동을 이끈 사람은 괴벨스와 히틀러였다. 히틀러는 ‘선전은 전문가의 손에서 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그래서 1928년 11월 선전전문가인 괴벨스를 나치당 선전부장으로 임명하였다. 괴벨스는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재원이었으며, 한때 광신적인 ‘마르크시스트’이기도 했다.¹¹⁾ 나치당이 재창

10) 위의 책, 276~289쪽 참조.

11) 랄프 로이트, 『괴벨스, 대중선동의 심리학』, 김태희 옮김(서울: 교양인, 2006), 1031~1032쪽.

당한 1925년 2월 당원이 되었으며, 7월 히틀러와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졌다. 괴벨스는 ‘신념’만이 불가능한 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¹²⁾ 1930년 야당인 나치당은 언론과 라디오, 영화 등을 선전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그는 당의 모든 집회에 마이크와 확성기를 선전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제복과 완장, 깃발 역시 유력한 선전선동 도구였다. 그가 주도한 나치당의 선전은 비교적 ‘노련한 수사’의 사용과 ‘교묘한 집회조작’이라는 특징을 갖추었다.¹³⁾ 그는 선전 주제로 개인보다 ‘민족공동체’¹⁴⁾를 내세우면서 국민총화를 호소했다. 인종(人種)의 순수성을 주장하면서도 대중들에게는 유대인과 불세비즘에 대한 증오심을 주입시켰다. 카리스마적 ‘지도자 원리’¹⁵⁾의 구현 역시 선전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였다. 그는 ‘상징조작’과 ‘심리조작’을 적절하게 구사했다. 대중의 비합리적 에너지를 정치과정에 흡수했다. ‘권위주의’와 ‘민족공동체’에 대한 선전을 통해 대중을 원자화·무력화시켜 나갔다. 새로운 영웅을 갈망하는 대중의 심리를 적절히 이용하기도 했다. 돌격대·친위대 등의 폭력을 통해 대중의 ‘공포심리’를 자극하면서 선전선동의 효과를 극대화했다.¹⁶⁾ ‘희망’과 ‘공

12) 위의 책, 841쪽.

13) 데이비드 웰시, 『독일 제3제국의 선전정책』, 최용찬 옮김(서울: 해안, 2001), 30~32쪽.

14) “민족공동체: 독일 인종에 속하며 정치적 반재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그 안에서 신분 재산 교육정도 등의 모든 차이는 사라진다는 나치즘을 비롯한 민족주의의 이상. 나치 이데올로기와 선전의 핵심.” 랄프 로이트, 『괴벨스, 대중선동의 심리학』, 35쪽.

15) “지도자주의(Fuhrertum): 나치즘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파시즘에 특징적인 이데올로기로 민주주의 의회주의 인권에 반대하여 주장되며 민족이나 조직이 한 개인의 결정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의무를 중심으로 함.” 위의 책, 98쪽.

16) “친위대(SS): 1925년 5월 돌격대 산하 히틀러 개인 호위대로 창설됐다. 1929년

포'의 이중적 전략에 의해 나치당의 선전선동을 이끌었다.

선전에 대한 히틀러의 자문자답은 간단하다. '선전은 누구를 대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가? 과학적으로 훈련된 지식인들인가 아니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일반대중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선전이란 항상 오로지 대중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거대한 대중들의 수용능력은 매우 제한적이며 그들의 지능은 매우 낮다. 그러나 그들의 망각능력은 실로 대단하다. 따라서 모든 효과적인 선전은 아주 간단한 핵심요소들로 한정되어야 하며, 대중들에게 이해시키려 하는 것을 마지막 한 사람이 이해할 때까지 구호로써 되풀이해야 한다"¹⁷⁾는 데 잘 나타난다. 히틀러는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전에 있어, 사랑과 미움 같은 감정적인 요소를 강조하면서 '집요함이 성공적인 선전'의 필수요건이며,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동일성을 갖는 선전'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히틀러는 제복과 완장, 깃발을 중시하면서 강렬한 몸짓과 언어로써 지도자의 상징성을 보여주었다. 그는 혼자서 하는 독백의 라디오 연설보다 대중집회에서 대중들과 직접 호흡하는 연설을 즐겼다.

나치 시기의 선전선동은 제국민족계몽선전부처(RMVP: 이하 제국선전부처)와 당중앙선전국, 그리고 제국문화부처 등이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¹⁸⁾ 이들에 대한 모든 통제는 선전장관인 괴벨스가 했다. 제국선전부처의 요직은 다른 나치 행동가들보다 높은 교육적 자질을 가진

부터 힘러의 지휘에 따라 나치당 내 경찰 기능을 수행했다. 1934년 6월 뉘른베르크 참모장 숙청 뒤 뉘른베르크를 대신하는 당 군사조직으로 부상했다. 1945년 까지 90만 명을 거느렸다." 위의 책, 193쪽.

17) 데이비드 웰시, 『독일 제3제국의 선전정책』, 28쪽 재인용.

18) "제3제국의 정치구조 역시 당(Partei)과 국가(Staat)라는 두 개의 기둥에 토대 두고 있었다." 위의 책, 46쪽.

열정적 나치 청년당원들이 차지하였다. 자금은 라디오 허가 과정에서 마련되었다.¹⁹⁾

나치 시기 가장 주목받는 선전수단은 라디오였다.²⁰⁾ 당시 라디오는 첨단的大중동원 매체였다. 선전매체로서 라디오는 1934년 ‘자알란트 합병’에서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다. 압도적 지지가 필요했던 나치는 현장에 값싼 라디오 수신기를 보급했다. 방송은 ‘독일이 겪은 비애’라는 고도로 계산된 감정을 연일 호소했다. 곳곳에 조직된 공동체들은 라디오를 통해 중요한 나치 사건을 빠르게 청취하고 학습했다. ‘유언 비어’에 가까운 무자비한 캠페인도 전개됐다. 1935년 1월 국민선거에서 투표자의 91%가 ‘민족사회주의 독일’을 선택했다. 나치의 선전선동가들은 라디오를 이용할 경우 많은 정치적 목표를 성취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²¹⁾

괴벨스는 종종 ‘언론’을 나치의 ‘피아노’라고 불렀다. 정부가 원하는 것을 연주하는 것이 언론의 유일한 임무였다.²²⁾ 나치는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3가지 접근 방식을 취했다. 언론 산업에 관계된 모든 사람을 혹독하게 관리했다. 당의 출판사인 ‘에어출판사’를 통해 독일 언론을 거의 장악했다. 제국선전부처가 독일정보국과 함께 보도지침을 내려 언론의 내용을 철저히 통제했다. 언론의 생명인 ‘절대적 객관성’은 무의미해졌으며 언론은 정부로부터 정보뿐만 아니라 지침을 받아야 했다.²³⁾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의 언론은 탄압을 받았다. 이들이 소

19) 위의 책, 46~48쪽 참조.

20) 위의 책, 57쪽 참조.

21) 위의 책, 59쪽.

22) 랄프 로이트, 『괴벨스, 대중선동의 심리학』, 414쪽.

23) 데이비드 웰시, 『독일 제3제국의 선전정책』, 63쪽.

유한 하드웨어는 나치 신문에 의해 파괴되거나 접수됐다. 언론은 반유대주의 캠페인을 위한 도구였다. 하지만 나치 선전선동가들은 신문보다 방송을 선호했다. 히틀러는 야당 시절 언론으로부터 받은 격심한 비판 때문에 언론을 특히 싫어했다.²⁴⁾

나치 시기 영화도 선전수단으로 많이 활용되었다. 1932년 극장업주들의 자체적인 통제함과 함께 나치의 공장 세포 조직이 카메라맨, 영화배우, 감독에까지 침투하였다. 영화신용은행을 설립해 영화 제작을 위한 재정을 나치당이 독점하였다.²⁵⁾ 1934년 2월 16일 제국영화법이 개정되어 의무적인 원고 검열이 이루어졌다. 영화 ‘등급표시제’를 도입하였으며 1942년에는 영화산업의 국유화가 마무리되었다.²⁶⁾ 레니 리히펜쉬탈 감독의 1934년 뉘른베르크 전당집회를 다룬 <의지의 승리(Triumph des Willens)>(1935)와 1936년 베를린 올림픽경기에 대한 4시간짜리 기록물 <올림피아(Olympia)>(1938)가 대표적이다. 괴벨스는 선전선동이 잠행성을 띠고 메시지가 대중적인 오락물의 틀 속에 숨겨져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믿었다. 오락과 선전을 혼합한 영화가 쏟아져 나왔다. 제작된 영화의 절반이 멜로 코미디였으며 25% 정도가 범죠티나 뮤지컬이었다.²⁷⁾

전시 나치의 ‘선전선동’은 독일 국민에게 전쟁의 대의명분과 무적성(invincibility)을 확신시키고 중립국을 포섭하며 적들의 저항정신을 꺾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시 나치 ‘선전선동’은 전격전과 러시아 캠페인, 총력전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²⁸⁾ 전쟁 발발과 함께 독일군은

24) 위의 책, 68쪽.

25) 위의 책, 72~73쪽 참조.

26) 위의 책, 78쪽.

27) 위의 책, 81쪽.

곳곳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 시기 나치의 선전선동은 ‘유럽을 유태인과 볼셰비키의 위협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했다’는 전격전을 합리화하는 것이었다. ‘통일유럽’이라는 미끼가 동원됐다. 전쟁 초반 독일 대중 여론은 선전에 매료되어 히틀러의 최종 승리를 확신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독일 정보국의 분석보고서는 달랐다. 독일 국민들이 전쟁 초기 이어진 승전보로 도취감에 빠져든 것도 사실이지만 국민들 사이에는 전쟁종식에 대한 강력한 바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있다.²⁹⁾

나치 선전은 러시아 진격과 함께 ‘선전 주제’가 변했다. ‘아리아 인종은 위대하며 동양 민족은 모두가 열등하다’는 히틀러 이념의 확산이었다.³⁰⁾ 패배를 모르던 독일군이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통해 처음으로 패배한다. ‘2차 대전의 전환점’이 마련된 만큼이나 중요한 사실은 이 전투의 패배로 나치의 ‘선전선동’ 역시 치명상을 입었다. 전투 상황에 따라 괴벨스는 ‘선전’의 전략과 전술을 수정했다. 반볼셰비키 선전은 일관성을 상실했다. ‘승리의 확산’을 심어주는 데도 실패했다. 독일인들은 러시아의 질질 끄는 전쟁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전투의 패배’는 ‘볼셰비키는 반동이며 곧 파산할 것’이라던 기존의 나치의 선전 이데올로기를 설명해 내지 못했다. 나치의 ‘선전선동’은 러시아인을 원시 야만인으로 묘사했지만 ‘러시아노동자’와 접촉한 부상 군인 등을 통해 볼셰비키가 괴물의 전형과 일치하지 않음도 확인해주었다. 나치 ‘선전선동’에 대한 의구심이 독일 전역에 확산되었다.³¹⁾ ‘스탈린그라드 패배’는 군사적 패배일 뿐 아니라 ‘나치 선전’의

28) 위의 책, 161~162쪽 참조.

29) 위의 책, 173쪽.

30) 위의 책, 176쪽.

가장 큰 첫 번째 실패를 의미했다. 스탈린그라드의 치욕적 패배에 충격을 받은 히틀러는 당 대표연설가의 자리를 비운다. 대신 1943년 괴벨스가 ‘수석 연설가’ 자리에 오른다. 스탈린그라드의 패배가 오히려 ‘선전장관’ 괴벨스를 독일정치의 전면에 내세우는 역사의 아이러니컬한 순간이기도 했다. 괴벨스는 ‘독일이 패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국민들의 총체적 참여를 촉구했다.³²⁾ 괴벨스의 전략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었다. ‘카틴학살’³³⁾ 사건을 성공적으로 ‘선전선동’에 이용하면서 국민과 나치 지도부가 일체가 됐다는 인상을 심어주기까지 했다. 단기적 성공은 승리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역설적으로 ‘평화협상을 통해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한다’는 요구도 불러일으켰다.³⁴⁾ 괴벨스는 단기적인 선전의 효과에 도취되어 광기에 빠졌다. ‘선전선동’을 위해 영화 <콜베르크>에 소련 군대를 방어하던 육군 18만 7,000명, 해군 4,000명을 동원한 것은 대표적인 예다.³⁵⁾ 드라마틱한 효과에 대한 괴벨스의 집착이 낳은 결과였다.

나치의 선전선동은 시각조형물과 대규모 군중대회를 이용해 집단적으로 대중을 도취시켜 나갔다. 집단도취에 의한 외경(畏敬)의 극치에 이른 선전선동은 ‘정치를 미학화했다’는 평가를 낳을 정도였다.³⁶⁾

31) 위의 책, 183쪽.

32) 위의 책, 185~186쪽 참조.

33) “2차 대전 가운데 소련이 포로로 잡은 폴란드 장교들을 대량 학살한 사건이다. 소련이 폴란드 병사의 생사 여부를 밝히지 않는 가운데 독일군이 1943년 4월 13일 스몰렌스크 근교의 카틴 숲에서 폴란드 장교들이 묻혀 있는 무덤을 찾아냈다고 발표했다.” 랄프 로이트, 『괴벨스, 대중선동의 심리학』, 792쪽.

34) 데이비드 웰시, 『독일 제3제국의 선전정책』, 194쪽.

35) 위의 책, 207쪽.

36) 임지현·김용우 엮음, 『대중독재 2: 정치종교와 헤게모니』(서울: 책세상, 2005), 264쪽.

나치는 20세기 대표적 전체주의국가로서 이른바 민족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위해 정치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세계관과 생활 양식을 바꾸도록 했고, 이를 위해 왜곡 조작된 선전선동에 집중했다. 또 국민 단결을 위하여 인종의식에 바탕한 ‘국민공동체’ 사고를 고취하고 그 정점에 지도자 총통(Fuehrer)을 세워 1인 우상화를 시도했다. 히틀러와 나치당은 대중을 설득하기보다는 강제했다. 억압을 강조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주요한 증거는 나치 정권의 군대와 경찰, 특히 비밀경찰의 역할에서 나타난다.³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제국’ 시기 저항이나 체제 전복 시도는 거의 전무했다. 많은 평범한 대중들이 ‘홀로코스트’의 범죄 행위에 기꺼이 동참했다. 히틀러를 대신해 사형 집행자로 나섰다.³⁸⁾ 나치당의 선전선동은 히틀러를 한 사람의 정당 지도자가 아니라 독일 민족이 기다리던 바로 ‘그 인물’로 그려냈다.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 히틀러는 일상의 정치로부터 자신을 지속적으로 격리해 왔다. 정부 내 최악의 극단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괴벨스가 대표적 인물이었다. 히틀러의 이러한 노력은 당의 인기 추락에도 자신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충성심은 스탈린그라드의 패배와 히틀러의 대국민연설 거부 이후 급속도로 사라진다.

마침내 괴벨스는 ‘민족사회주의자’ 히틀러를 ‘프로이센의 왕’ 프리드리히 대제로 묘사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국가 위기상황’ 앞에서 선전선동은 비참한 한계를 드러냈다. 이성을 상실하고 ‘광기’에 몸을 맡겨 버린 ‘나치 선전선동’의 종말이기도 했다.³⁹⁾ ‘신화’와 ‘카리스마

37) 위의 책, 549쪽.

38) 임지현·김용우 엮음, 『대중독재 1: 강제와 동의 사이에서』(서울: 책세상, 2004), 213쪽.

지도력'이 함께 소멸했다. 히틀러와 괴벨스는 포위가 좁혀오자 병커로 숨어들었다. 독일 국민을 '운명'에 내맡기고 유태인과 불세비즘에 맞선 지금까지의 투쟁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나약함을 비난했다. 그들이 병커에서 자포자기식 음주가무를 즐기는 순간에도 많은 독일인들은 최후까지 고통스런 투쟁을 이어갔다.

국민들이 끝까지 보여준 '영웅적 투쟁'은 부분적으로 나치의 선전선동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마지막 투쟁기간 괴벨스가 한정적 성공을 누린 것은 불세비즘에 대한 두려움과 전통적 독일에국주의, 권위에 대한 존경일 뿐이었다. 결코 선전선동의 성과는 아니었다.⁴⁰⁾ 괴벨스는 나치 '선전선동'의 가장 큰 성과는 '바이마르 공화국 기간 침체에 빠졌던 독일을 불과 12년 만에 세계의 한 가운데 건져 올린 것'이라고 자평했다.⁴¹⁾ 그 12년 때문에 독일은 폐허가 되었다.

나치당에서 확인된 선전선동의 한계는 선전선동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기도 하다. '선전선동'을 통해 정권을 신속히 장악하거나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정권의 유지와 안정에도 매력적인 도구이다. 그러나 '전쟁'이나 '체제 전환'과 같은 급격한 '정치적 격변' 앞에서는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전쟁'이나 '체제 전환'이 '선전선동'의 양태를 바꿀 수는 있지만 '선전선동'이 전쟁의 양상을 바꾸거나 체제 전환을 막아낼 수는 없다.

39) 데이비드 웰시, 『독일 제3제국의 선전정책』, 160쪽.

40) 위의 책, 210쪽.

41) 위의 책, 215쪽.

2) 중국

중국 공산당도 레닌과 스탈린이 체계화한 혁명이론을 수용하였기에 당연히 선전선동에서도 소련모델의 영향을 받았다.⁴²⁾ 중국 공산당은 초기 혁명과정에서 당 조직의 건설을 통한 선전선동을 가장 중요한 혁명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중국 공산당 제1차 대표대회에서 통과한 “중국 공산당 제1결의”의 6개의 내용 가운데 2번째가 바로 ‘선전’에 관한 것이었다.⁴³⁾ 1949년 공산당정권을 수립한 후 추진한 사회주의 개조와 사회주의 건설 시기, 그리고 1980년대 이후 개혁개방 시기까지도 선전과 이론교육을 당의 가장 중요한 업무로 강조 추진하였다. 그러나 1976년 마오쩌둥의 사망과 1978년 덩샤오핑의 등장 이후 혁명과 계급투쟁의 용어가 사라지고 개혁과 경제발전을 중시하였다. 또한 선동이란 용어도 사라지면서 ‘사상정치교육’이나 ‘문명교육’과 같은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여 선전사업을 추진하였다. 중국 공산당의 경우 용어 자체의 변화뿐만 아니라, 선전교육의 내용도 개혁개방 시기 이후에는 정치의 변화, 사회경제의 변화에 맞추어왔다. 사상정치교육이라는 개념은 1951년 류사오치가 중국 공산당 정권수립 후 개최된 제1차 전국선전공작회의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에 마오쩌둥이 “인민 내부 모순의 정확한 문제의 처리에 관하여”라는 문장에서 사용하면서 이 용어의 사용이 보편화되었으며, 덩샤오핑의 노선을 시작한 1978년 제11기 3중전회에서도 ‘사상정치공작’이나 ‘사상정치교육’이라는 용어로 선전활동을 개념화하였다.⁴⁴⁾

42) 趙康太主編, 『世界馬克思主義理論教育比較研究』(北京: 中央編譯出版社, 2006), 162쪽.

43) 『思想政治工作二十講』(北京: 中共黨史出版社, 2000), 33쪽.

44) 張蔚萍主編, 『新編黨務工作全書』(北京: 中國言實出版社, 1995), 869~870쪽 참조.

마오쩌둥과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대부분 러시아로부터 선전기술을 훈련받았으나 그들의 선전은 창조적이고 시적인 감각을 지녔다. 이는 1934년 대장정의 ‘영웅적 이미지’와 ‘거대한 신비성’을 선전하는 수법에 잘 나타난다. 마오쩌둥은 스스로 “우리 인민은 가난하고 백지이다. 그러나 백지에는 가장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다”⁴⁵⁾고 말하였다. 그는 대중의 실체와 속성을 파악하는 것을 선전의 요체로 보았다. 선전은 대중을 이끌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대중의 의견을 알고 음미하는 데서 출발해야 함을 강조한다. 대중노선에 의한 대중운동에 역점을 두었으며, 이는 공산정권 수립 뒤의 백화제방과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에도 잘 나타난다. 특히 문화대혁명은 마오쩌둥 자신이 행동으로 선전과 대중 설득에 앞장섰다. 『마오쩌둥 어록』이 전국에 등장하고 대군중이 모여 ‘마오쩌둥 만세’를 외치고, ‘인민들 마음속의 붉디붉은 태양’이라고 합창했다. 거대한 적기와 초상화, 군중의 히스테리와 열광이 휩쓸었다. 문혁의 거대한 포스터에서 마오쩌둥은 영웅적이면서도 자상한 아버지로 묘사되었다. 체제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정서적 상징이 이용되었고 지식인과 미국이 증오의 대상으로 선전됐다.

덩샤오핑은 1981년부터 정신문명의 건설을 위한 ‘오강사미삼열애’를 강조하였다. 즉 ‘문명, 예모, 위생, 질서, 도덕’을 이야기하고, ‘심령미, 언어미, 행위미, 환경미’를 바탕으로 하는 예절활동, ‘열애당, 열애사회주의, 열애조국’의 운동이 바로 그것이다.⁴⁶⁾ 그 외에도 사람들의 이데올로기와 공공질서를 강조하는 문명성시, 문명촌과 문명행업을 건설하자는 광범위한 문명운동을 벌였다. 장쩌민시대에는 중국 공산

45) 劉建君主編, 『中國共產黨思想政治教育理論與實薦』(北京, 人民大學出版社, 2006), 337~338쪽.

46) 위의 책, 337~338쪽 참조.

당의 ‘삼개대표’라는 것을 사상정치교육이론의 새로운 핵심으로 삼고 시대에 적응하는 사상정치교육공작을 강조하였다. ‘삼개대표’라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 새로운 문화의 대표, 새로운 경제의 대표, 전체인민을 대표한다는 것으로 장쩌민의 사상을 정리한 주장이다. 이를 바탕으로 장쩌민 시기에는 ‘이덕치국’을 강조하고, ‘사유(이상이 있고, 도덕이 있고, 문화가 있고, 기율이 있는)’의 ‘신인의 사상’을 기초로 하는 ‘인간의 전면적 발전’을 역설하였다. 1995년부터는 ‘삼강’사업을 전개하여 ‘강학습, 강정치, 강정기’를 주장하는 사업을, 2004년부터는 3단계로 나누어서 중앙, 지방, 기층농촌조직에 이르는 전체 공산당원에 대한 ‘선전성 교육활동’도 광범위하게 추진하였다. 후진타오 시기에도 사상정치교육과 문명교육을 위주로 하는 선전사업이 오히려 과거보다 더욱 중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9년 개혁개방 30주년을 기념하면서 대대적으로 강조한 ‘중국사회주의핵심가치체계’에 대한 선전교육이 바로 그것이다.

중국에서 선전사업과 관련된 최고의 정책결정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설치된 ‘중앙정신문명건설지도위원회’이다. 1997년 설립된 이 위원회는 중공중앙위원회의 중앙기율위원회, 중앙조직부, 중앙선전부, 중앙통일선전부와 같은 6개의 당 조직, 그리고 정부의 교육부와 문화부를 포함한 22개 부처 및 위원회, 중국사회과학원, 해방군총정치부 및 전국총공회, 공산주의청년당중앙위원회, 전국부녀연합회, 전국장애인연합회 등 총 34개의 조직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 위원회가 사실상 중국의 ‘정신문명건설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의 이데올로기(중국에서는 의식형태라고 함)와 선전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의 의결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의 사상정치교육의 목표는 시대에 따라 달랐지만 사람

들의 사상정치적인 깨달음을 높이고, 사람들의 전면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지속되어왔다. 사람들을 ‘사회주의의 깨달음을 가진 문화의 노동자’로 배양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덩샤오핑이 ‘사유’의 ‘신인’의 배양을 주창한 이후, 사상정치교육의 목표는 ‘사유’를 가진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이상, 도덕, 문화, 기율이 있는 사회주의의 새로운 사람을 배양하는 것이다.⁴⁷⁾ 선전과 사상정치교육의 원칙은 이론과 실천의 결합, 민주와 정확한 지도원칙의 결합, 사상정치공작과 경제와 실무공작을 결합하는 원칙, 사상정치공작과 물질이익을 결합하는 원칙, 물질적 장려와 정신적 장려를 결합, 실천을 위주로 실천과 말로 하는 교육의 결합, 표창을 위주로 표창과 비평의 결합, 설득교육과 기율조직의 결합을 강조하고 있다.⁴⁸⁾ 그 외에도 사상정치교육에서 ‘관수와 삼투,’ 즉 ‘주입과 삼투’의 결합을 강조하고 있다.⁴⁹⁾ 선전과 사상정치교육의 방법은 교육조직교육, 집중이론학습, 실천과 단련교육, 모범수립교육, 회의와 토론, 개별적 교육 및 비평경연대회 등 각종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상교육의 방법에서도 인터넷 기술과 문화매체를 새롭게 활용하는 사상정치공작을 강조하고,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강력한 ‘사상정치교육대오’를 갖출 것도 강조한다.

47) 위의 책, 26쪽.

48) 위의 책, 27쪽.

49) “新中國成立以來思想政治工作規律解析,” 思想政治工作研究 『中國文明網』
2009년 11월 5일 인용(http://www.wenming.cn/gzyd/2009-10/29/content_18085052.htm).

3) 북한

북한은 선전을 “일정한 사상, 리론, 정책 등을 대중에게 론리적이며 체계적으로 해설해줌으로써 리론적으로 파악하고 인식하게 하는 것 또는 그러한 사상사업의 한 형식”⁵⁰⁾이라고 정의한다. 선동은 “혁명과업을 잘 수행하도록 대중에게 호소하여 그들의 혁명적 기세를 돋구어 주며 당 정책 관철에로 직접 불러일으키는 것 또는 그러한 정치사상사업의 한 형태”⁵¹⁾로 규정한다. 그러나 북한은 실제로 선전은 ‘무의식적이고 무자각적인 대중들의 태도를 각성시키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고, 선동은 ‘각성된 대중들을 투쟁으로 이끄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선전은 인민들을 각성시키는 수단이고, 선동은 각성된 인민들을 행동으로 이끄는 수단으로 보는 듯하다. 그러나 현 단계에는 선전선동의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용어로 사용하는 측면이 강하고, 선전선동은 ‘대중을 사상화, 조직화, 행동화하여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는 강력한 무기’로 보고 있다.

김일성은 선전과 선동사업에 대해 좀 더 구체화하고 있다. “사상사업의 기본형식은 선전과 선동이며 …… 선전은 대중에게 당의 사상과 리론, 로선과 정책을 체득시키는 사업이고 …… 선동은 대중을 혁명과업수행을 위한 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 사업이며 …… 선전과 선동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진실성, 호소성, 전투성, 기동성, 논리성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⁵²⁾ 즉, 선전사업은 “론리정연하고 진실하게, 알기 쉽고 설득력 있게 하여야 하며 선동사업은 감동적으로 기백 있게

50) 문영호 외, 『조선말대사전(증보판)』, 제2권(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7), 710쪽.

51) 위의 책, 703쪽.

52)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제40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46쪽.

그리고 구체적인 정황과 계기에 맞게 기동적으로 하여야 한다. 론리성 있고 진실하고 통속적인 선전과 호소성과 전투성, 기동성 있는 선동만이 원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⁵³⁾는 것이다. 북한은 선전선동 사업의 선행원칙으로써 수령의 교시를 ‘전달침투’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시는 교시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전달 침투시키는 것을 선전사업의 첫 공정으로 삼았고……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로운 교시를 하시면 그 내용에 따라 해당하는 대상들에게 지체 없이 그것을 전달 침투시키는 것을 제도화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한 번 전달 침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교시의 진수와 전반사상을 완전히 파악할 때까지 그것을 깊이 연구 체득하도록 하였다”⁵⁴⁾고 설명한다.

북한의 선전선동사업의 역사적 전개는 아홉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⁵⁵⁾ 제1기는 1945년 해방부터 1950년 한국전쟁 발발까지이다. 이 시기 선전선동의 특징은 소련과 스탈린에 대한 극진한 예찬과 지도자로서 김일성의 부각, 그리고 북한 내의 제반 민주개혁의 부각 등이다. 소련에 대해서는 해방자, 해방의 은인, 원조자로 묘사하고 있고, 소련군에 대해서는 해방군 또는 혁명전우로, 스탈린에 대해서는 ‘해방의 은인 위대한 스탈린 대원수’로 극찬하였다. 김일성에 대해서는 절세의 애국자, 영명한 지도자로 표현하였고, 특히 김일성을 ‘위대한 빨치산 영웅’으로 묘사하면서 지도자, 통치자로 부각시켰다. 제반 민주개

53) 문명진, 『당사업경험』(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61쪽.

54) 위의 책, 62쪽.

55) 시기의 구분 기준은 혁명 강조, 김씨 부자(김일성, 김정일) 충성 강조, 고난의 행군강조, 선군사상 강조, 강성대국과 간접적인 후계체제 강조 등 그 특징에 기반을 두고 있다.

혁과 관련해서는 친일 민족반역자의 숙청과 지주 토지의 몰수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인민들을 선동하였고, 남녀평등과 같은 제반 개혁 프로그램이 평등하고 민주주의적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신문이나 방송 매체기관이 창설 중에 있었고, 대중선전교양단체인 근로단체나 예술 공연단체 등도 창설 중에 있었기 때문에 주로 구호나 깃발, 길거리 선전선동이 중심이었다. 제2기는 1950년부터 1953년까지 한국전쟁기간이다. 이 시기의 선전선동은 전쟁참여에 대한 독려와 전쟁승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민군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군인과 군대의 호전성이나, 영웅성, 전투성을 강조하였고, 북한을 지원하는 중공에 대해서는 친선단결을 강조하였다. 특히, 마오쩌둥에 대해서는 극찬하였고 전쟁 말기에는 반미주의를 중심으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의 병행을 강조하였다. 제3기는 1953년 휴전부터 주체가 등장하는 1956년까지이다. 소위 ‘전후복구 시기’이다. 이 시기의 선전선동은 ‘모든 힘을 전후복구 건설로’라는 구호하에 인민들을 조직 동원하거나 쫓기·고무·추동하는 선전선동사업을 진행하였다. 제4기는 1956년 중순부터 1966년까지로 약 10년간 김일성 체제의 확립 시기이다. 북한은 1956년에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면서 소위 ‘주체’를 세웠다. ‘주체확립’을 위해서 1956년 초에 ‘계속전진, 계속혁신 운동’을 강조하였고, ‘전진·혁신 운동’은 1956년 하반기에 ‘천리마운동’으로 확대·발전하였다. 이 시기 북한은 ‘당의 사상만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당의 사상만으로 숨 쉬고, 당의 사상만으로 행동한다는 소위 ‘당적 사상체계 확립’을 제기하였다. 1958년부터는 ‘혁명전통 확립’을 강조하면서, 조선인민군과 조선로동당의 투쟁 뿌리는 ‘항일무장 투쟁’에 있음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가 대대적으로 출판되었고, 혁명사적지의 발

굴과 혁명사적지에 대한 인민들의 조직적인 참관이 진행되었다. 제5기는 1967년부터 1973년까지이다. 김일성의 ‘유일사상체계’의 확립을 통해 소위 ‘김일성주의화’로 발전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김정일이 직접 선전선동에 뛰어 들어 ‘3대혁명 소조’를 만들었다. 특히, 김정일이 예술, 문화 부문에서 진가를 발휘했으며, <피바다>, <꽃 피는 처녀> 등이 당시에 만들어졌다. 제6기는 김정일이 직접 ‘실무지도’에 나서는 1974년부터 1979년까지이다. ‘김정일의 세습체제 확립’ 시기이다. 이 시기의 선전선동은 ‘김일성의 영도하에’ 김정일의 ‘유일적 지도 확립’을 강조하면서, 김정일을 ‘유일한 후계자, 영명한 지도자’로 부각시켰으며, 김정일은 ‘실무지도’를 통해 주민들과의 대면 소통을 강화하였다. 제7기는 1980년부터 1994년 김일성 사망까지로서, 김씨 부자에 대한 절대적 충성심을 강조하는 시기이다.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김정일을 ‘지도자’로 공식 등장시켰고, 김정일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강조하였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대를 이은 충성으로 김씨 부자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이끄는 것이었고, 특히 충성과 함께 김정일을 지도자로 부각시키기 위해 김정일의 교시 ‘해설집’까지 등장하였다. 이는 김일성과 김정일을 동격화하는 징후들이다. 제8기는 1995년부터 2008년까지이다. 김일성의 3년상이 있었지만 김정일 시대였다. 이 시기 선전선동의 특징은 고난의 행군과 선군정치, 제2의 천리마 대고조와 강성대국 건설 등을 강조한 것이었다. 선군정치는 군대를 혁명의 주력, 기둥으로 삼아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고, 나아가 민족과 국가를 보위하는 정치방식이다. 마지막인 제9기는 2009년부터 진행형이다. 이 시기의 선전선동은 강성대국 진입을 위한 주민들의 결속, 특히 당을 중심으로 한 결속을 강조하면서 후계자인 김정일의 이상화에 치중하는 모습이었다. 김정일의 의상과 머리

스타일, 걸음걸이 등을 김일성과 닮은꼴로 부각시킨 것은 3대 세습이 아닌 혁명전통의 계승을 부각시키려는 전략적 의도가 담긴 듯하다.⁵⁶⁾

북한의 선전선동의 조직체계는 크게 지도감독기구와 집행기구로 나눌 수 있다. 지도감독기구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산하에 전담부서인 ‘선전선동부’가 맡고 있다. 중간조직인 도와 직할시의 선전선동기구는 지도와 집행을 병행하고 있다. 하위조직은 순수한 집행기구이며, 군과 리의 선전선동 기구와 외곽단체의 집행기구도 있다. 구체적인 외곽단체는 직업총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 사회주의청년동맹 등이 있다. 선전선동의 사업체계는 노동당 조직에서 정기학습망, 강연망, 선동망 같은 체계가 있다. 선전선동부의 구성원들은 북한 엘리트 가운데 가장 보수적이고 충성심이 강하며, ‘체제유지’의 선봉장에 있다. 이 전문부서는 당 간부뿐만 아니라 당원들의 사상화, 조직화, 행동화에 앞장서고 있고, 특히, 선전선동부가 김일성, 김정일의 우상화에 앞장서면서 비협조적인 엘리트들을 조직지도부에 보고하고, 나아가 이들을 책벌하도록 하는 권한까지 있기 때문에 엘리트들이 선전선동부 활동에 아주 적극적이다. 당 전문부서로써 선전선동 사업과 관련된 역사연구소와 사적부가 있다. 역사연구소는 공산주의 역사, 노동당 역사, 김일성 가계의 역사적 활동을 중심으로 교양선전자료를 만드는 기관이고, 사적부는 김일성 가계 중심의 혁명지나 박물관, 기념관과 같은 사적지를 중심으로 선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선전수단으로서 언론매체(노동신문, 제3방송, 중앙TV 등)를 통한 대중교양과 영화 촬영소, 창작공연단체, 극장 등에서 문화예술 선전선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56) 김인옥, 『김정일 장군 선군정치리론』(평양: 평양출판사, 2003), 참조.

북한에서 김정일 우상화는 극에 달해 있다. 김정일의 ‘호칭’과 관련하여, 김정일은 1974년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 약 40여 가지의 호칭을 가졌다. 1970년대는 주로 ‘당 중앙’과 ‘존경하는 지도자, 또는 경애하는 지도자’로 많이 표현하였다. 구체적으로 김정일이 1973년 당 48조직 및 선전선동 담당비서와 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되면서 ‘당 중앙’으로 호칭해 오다가 1975년 김정일 생일인 2월 16일을 휴무일로 지정하면서 ‘유일한 지도자’라는 호칭이 등장하였다. 물론 ‘당 중앙’과 ○○○지도자라는 표현에 있어 실제적으로 김정일이라는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지만 차후에 김정일임이 확인되었다. 김정일은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 이후 정치국 상무위원과 군사위원회 위원의 요직을 거치면서 호칭도 1970년대와 확연히 달라졌다. 1983년 41회 생일을 계기로 ‘영도자’로 불렸고, 같은 해에 최고사령관으로, 1986년 44회 생일에는 ‘인민의 아버지’로, 1987년 45회 생일을 계기로 ‘위대한 영도자’로까지 격상되었다. 이처럼 1980년대는 김정일의 생일을 기해 호칭이 한 단계씩 격상되는 모습을 보여 주었고, 특히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라는 문구 앞에 ‘영도자가 갖추어야 할 품모를 완벽하게 지닌’ 등의 미사여구를 붙여 그 의미를 부각시키기도 했다. 1990년에는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혁명의 지도자’로, 1991년에는 ‘위대한 수령’으로, 그리고 선군사상이 강조되는 1990년대 후반부터는 ‘장군’을 강조함으로써 호칭에 있어 김일성과 버금가는 형태를 보였다.⁵⁷⁾

교육부문에서의 우상화선전도 주요 특징이다. 북한은 ‘공산주의적 새 인간 양성’이라는 교육목표하에 각급 학교의 교과서에 김씨 부자

57) 조정호, 『김정일 장군 일화집』(평양: 평양출판사, 2003), 참조.

의 이상화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일례로 인민학교 4년 동안에는 ‘친애하는 김정일 선생님 어린 시절’이라는 과목이 연간 약 152시간이 책정되어 있고, 고등중학교 6년 동안에는 ‘김정일 선생님의 혁명활동’을 112시간, 혁명역사를 110시간 책정하여 교육시키고 있다. 고등교육인 대학에서는 김정일학과가 생겼다. 김일성종합대학교 역사학부에 속해 있던 혁명역사학과는 1990년대 들어와 ‘김일성학과와 김정일학과’로 분리되었고, 김형직 사범대학에서는 1987년 소위 ‘친혁과(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혁명역사학과를 졸업말)’를 신설하여 특별교육을 시키고 있다. 친혁과는 사상이 투철한 제대군인 가운데 3년 이상의 사회경험을 가진 자로서 각급 군당위원회 교육처에서 20 내지 30명씩을 추천받아 최종적으로 김형직 사범대학에서 선발하였다. 졸업생들 대부분은 당 조직지도부나 선전선동부 또는 각급단위의 기관에서 지도원으로 근무하면서 ‘김정일의 이상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을 이상화하기 위해 각종 혁명사적지를 만들거나 구호나무를 발굴, 김정일화를 선전하고, 전설집을 출판하거나 금강산이나 묘향산과 같은 명산에 김정일의 어록이나 구호를 새기기도 하였다. 사적지 조성은 김정일의 출생지나 성장한 곳 또는 한국전쟁 시 김정일의 피난처나 농촌지원활동을 한 곳에 만들어서 참관하는 인민들이 ‘한결같은 충성’을 맹세하도록 하고 있다. 일례로, 김정일이 출생하였다는 양강도에 ‘백두산 밀영’을 만들었고, 어릴 때 성장한 평양의 ‘어은’에 ‘어은 혁명사적지’를 만들었으며, 한국전쟁 당시 피난처인 자강도에 ‘장자산 혁명사적지’를 만들었다. 1967년 7월 김정일이 락원 마을의 건설방향을 제시해 준 곳이라 하여 함경남도에 ‘낙원혁명사적지’를 만들었으며, 현재까지 12개 이상의 ‘혁명사적지’가 만들어진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⁵⁸⁾

김정일의 이상화를 위한 해외선전사업도 활발하다. 해외에 선전하거나 해외로부터 역선전하기도 한다. 일례로, 잠비아와 같은 아프리카 국가에 김정일관, 김정일 거리 등이 조성되었다는 선전을 하고, 특히, 로동신문을 통해서도 남조선의 어느 누가 김정일을 흠모하고 있다는 등 날조하거나 왜곡하여 대내에 선전하는 사례도 있다.

4. 선전선동의 보편성과 특수성

나치독일과 중국, 북한은 선전선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모두 보여 주었다. 보편성은 선전선동의 기본원칙에 나타난다. 또한 선전의 조직 체계와 수단에서도 나타난다. 특수성은 상이한 정치환경적 요소에서 나타난다.

1) 보편성

나치독일의 선전선동 기본원칙은 감정에 호소하고, 정해진 문구를 끊임없이 반복함을 강조한다. 중국에서는 교육개념이 선전개념을 포괄한다. 선전교육 혹은 사상정치교육을 보편적 개념으로 사용한다. 사상정치교육의 기본원칙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자각하여 진행되는 것을 강조한다. 북한에서 선전사업은 대상의 수준에 맞게 당면한 혁명 임무와 결부시켜 진행하고, 단순하고 생활에 가까운 진리로부터 시작

58) 북한 문학예술종합출판사 편저, 『김정일 전설집』 백두산 전설집 2, 김동규 해설, (서울: 백수사, 1996) 참조.

하여 점차 힘든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함을 강조한다.⁵⁹⁾ 선동은 대중에게 주려고 하는 내용의 본질을 호소의 방법으로 전달·해설하며 그들을 동원하고 고무·추동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함을 강조한다.⁶⁰⁾

선전의 조직체계와 수단에서도 보편성이 발견된다. 나치 시기의 선전선동은 제국민족계몽선전부처(RMVP: 이하 제국선전부처)와 당 중앙선전국, 그리고 제국문화부처 등이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제국선전부처의 요직은 다른 나치 행동가들보다 높은 교육적 자질을 가진 열정적 나치 청년당원들이 차지하였다. 선전의 조직체계가 당과 국가라는 두 개의 기둥에서 이루어졌지만 핵심조직은 히틀러의 직할조직인 제국선전부처였다. 중국에서 선전사업과 관련된 최고의 정책결정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설치된 ‘중앙정신문명건설지도위원회’이다. 이 위원회는 중공중앙위원회의 중앙기율위원회, 중앙조직부, 중앙선전부, 중앙통일선전부와 같은 6개의 당 조직, 그리고 정부의 교육부와 문화부를 포함한 22개 부처 및 위원회, 중국사회과학원, 해방군총정치부 및 전국총공회, 공산주의청년당중앙위원회, 전국부녀연합회, 전국장애인연합회 등 총 34개의 조직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중국 또한 당과 국가기구의 두 기둥이 선전사업의 핵심적인 조직체계를 이루고 있다. 북한의 선전선동 조직체계는 지도감독기구와 집행기구로 나눌 수 있다. 지도감독기구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산하에 전담부서인 ‘선전선동부’가 있고, 중간조직인 도와 직할시의 선전선동기구는 지도와 집행을 병행하며, 하위조직인 군과 리의 선전선동 기구와 외곽단체는 순수한 집행기구이다. 또한 당의 독립적인 전문부서인 역사연구소와 사적부가 선전선동사업 업무를 한다. 선전선동부의 구성원들은 북한

59)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5), 304쪽.

60) 김일성, 위의 책, 305쪽.

엘리트 가운데 가장 보수적이고 충성심이 강하며, ‘체제유지’의 선봉장에 있다. 당적 지도를 하는 북한에서는 당의 기구가 조직체계의 핵심이다. 나치 시기 선전수단은 라디오, 언론, 영화 등이 핵심적 수단이었다. 북한의 선전선동 수단과 활동은 언론매체(노동신문, 제3방송, 중앙TV 등)를 통한 대중교양과 영화촬영소, 창작공연단체, 극장 등에서 문화예술 선전선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2) 특수성

나치독일의 선전선동은 지도자를 매개로 한, 한 메시지의 지속적인 전달이다. 나치독일은 대중에게 지속적인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에게는 위대하고 헌신적인 지도자가 있다. 위대한 아리아 종족의 발전을 위해 국민 모두는 지도자에게 믿음과 헌신을 바쳐야 한다”⁶¹⁾는 것이었다. 결국 나치독일의 선전선동은 히틀러의 ‘신화화’이다. 히틀러는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은폐하면서 후세에게 ‘신화 속의 영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했다.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도 마찬가지다. 조선을 김일성 조선, 조선민족을 김일성 민족이라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북한은 수령절대독재를 위해 유일사상을 선전선동에 활용하였다. 특히 북한은 분단상황의 현실을 선전선동에 적극 활용하였다. 대미, 대일, 대남 적개심 고취를 통해 당정군의 충성을 이끌고, 주민들의 통제를 통해 결속을 다졌다. 특히 북한은 대남선전선동을 대내선전선동 못지않게 중요시하고 있다. 대남선전선동의 기본방향은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남조선 혁명대오의 주체사상화

61) 안인희, 『게르만 신화·바그너·히틀러』(서울: 민음사, 2004), 325쪽 재인용.

이다. 남측의 친북 영도계급과 소수의 전위대원들을 혁명대오로 여기고, 이러한 혁명대오들을 우선적으로 주체사상의 의식화·무장화를 시킨다는 것이다. 둘째, 남조선 인민들의 혁명적 의식화이다. 의식화 대상을 인민대중으로까지 확대시킨다는 것이다. 셋째, 남조선 사회의 자주화, 민주화의 실현이다. 자주화는 반미자주화이고, 민주화는 반과소 민주화이다. 넷째, 연방제 통일방안 선전이다. 다섯째, 남남분열 선동이다. 여섯째, 남조선혁명의 국제화이다. 이러한 선전선동의 기본방향은 적화통일의 토대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현 단계 체제생존 문제에 봉착한 북한의 입장에서 실현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남측에 흡수되지 않기 위해 남북관계가 좋을 때는 지원을 얻기 위해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고, 악화 시에는 ‘남남분열’을 획책하면서 남측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활동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선전선동 개념을 이중적으로 사용한다. 당과 국가에 대한 위해 활동, 사회적 위해를 전파하는 활동, 외국의 반중국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미로서 선전선동을 비판한다. 그러나 당과 국가의 정책을 알리고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결속시키기 위해서는 선전교육 또는 사상정치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같은 특수성은 분단현실과 지도자의 성격, 주변국과의 관계 등 정치환경적 요소에 기인한다.

5. 결론

사례연구를 통해, 선전선동의 보편성은 첫째, 개념의 통합성이다. 선전과 선동이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사용하는 통합의 개념이다. 둘째, 당과 국가 차원에서 조직체계의 완비이다. 셋째, 언론매체의

활용이다. 선전선동의 특수성은 첫째, 지도자를 매개로 지속적인 하나의 메시지 전달이다. 둘째, 대중의 동의보다 강제에 치중하는 모습이다. 셋째, 정권 장악 과정에서는 대중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만 정권 장악 이후에는 지도자의 목소리가 커지는 현상이다.

나치독일은 선전선동을 통해 정권을 신속히 장악하였고, 일정 부분 효과적인 관리까지 하였다. 이는 선전선동이 정권장악과 유지에 효과적인 도구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쟁이나 체제전환과 같은 정치적 격변기 앞에서는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 북한은 선전선동에 의해 6·25 전쟁을 일으켰지만, 선전선동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는 못했다. 그러나 선전선동에 의해 김일성의 권력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히틀러와 김일성은 선전선동을 통해 ‘신화속의 영웅’으로 남고자 했다. 그러나 히틀러는 세계사의 전범으로 불리고 있고, 김일성은 내부적으로는 수령으로서 신화가 지속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전범과 독재자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한편 선전선동 개념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이중적이다. 공산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특수성에 기인한 듯하다. 그러나 개방 시기의 선전을 설득의 기술로서 교육적인 접근을 하는 것은 통제보다 소통을 하겠다는 전략이 담겨있는 듯하다.

선전선동은 대중여론, 정치와 깊은 연관을 갖는다. 국가의 선전에 일반대중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대중여론을 장악하기 위해 대중을 동원하거나 통제하는 강제성은 없었는지, 대중들은 국가의 선전에 대해 강제적 동의만 있고 순수한 동의는 없었는지 등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정치와 대중여론, 선전선동의 삼각 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 접수: 10월 30일 / 수정: 11월 14일 / 채택: 11월 28일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제40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_____,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5).
김일옥, 『김정일 장군 선군정치리론』(평양: 평양출판사, 2003).
문명진, 『당사업경험』(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문영호 외, 『조선말대사전(증보판)』, 제2권(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7).
조정호, 『김정일 장군 일화집』(평양: 평양출판사, 2003).

2. 국내 자료

1) 단행본

- 랄프 로이트, 『괴벨스, 대중 선동의 심리학』, 김태희 옮김(서울: 교양인, 2006).
북한 문학예술종합출판사 편저, 『김정일 전설집』 백두산 전설집 2, 김동규 해설(서울: 백수사, 1996).
안인희, 『게르만 신화·바그너·히틀러』(서울: 민음사, 2004).
유일상, 『선전과 여론설득』(서울: 아침, 2001).
유일상·목철수 편저, 『세계선전선동사』(서울: 이웃, 1989).
웰시, 데이비드, 『독일 제3제국의 선전정책』, 최용찬 옮김(서울: 혜안, 2001).
임지현·김용우 엮음, 『대중독제 1: 강제와 동의 사이에서』(서울: 책세상, 2005).
_____, 『대중독제 2: 정치 종교와 헤게모니』(서울: 책세상, 2005).
전미영, 『김일성의 말, 그 대중설득의 전략』(서울: 책세상, 2001).
편집부, 『선전선동론』(서울: 지양사, 1989).

2) 논문

- 박재규, “북한의 대내외 선전전략,” 『북한평론』(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75).
양무진·이무철, “사회주의체제 전환과 이데올로기 변화: 지배이데올로기의 수

정 및 퇴조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23권 3호(2007).
양무진, “주체사상과 선군사상: 지배이데올로기의 변화 가능성,” 『한국과 국제정치』, 제24권 3호(2008).

3. 외국 자료

1) 단행본

James, C. Vaughan. *Soviet Socialist Realism: Origins and Theory*(N.Y.: St. Martin's Press, 1973).

Kernig, C. Dieter Ed., *Marxism, Communism, and Western Society: A Comparative Encyclopedia*(New York: Herder and Herder, 1972~1973).

趙康太主編, 『世界馬克思主義理論教育比較研究』(北京: 中央編譯出版社, 2006).

劉建君主編, 『中國共產黨思想政治教育理論與實薦』(北京: 人民大學出版社, 2006).

張蔚萍主編, 『新編黨務工作全書』(北京: 中國言實出版社, 1995).

『思想政治工作二十講』(北京: 中共黨史出版社, 2000).

A Case Study of Propagandas: Nazi Germany, China and North Korea

Yang, Moo-jin(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atively analyze the cases of Nazi Germany, China, and North Korea to understand the universality and distinctive features of propagandas. Universality of the propaganda has a close association with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circumstances in addition to its leader's psyche. This article will analyze how the notion of propaganda is applied and developed through the comparison of three states.

The universality of propaganda consist first; the concept of integration. Propaganda and agitation is not a separate concept but integrated into a unitary component. Second, the organization system of party and the state is equipped through propaganda, and lastly, the mass media is utilized to achieve its goals. The three distinctive features of propaganda are first; a continuous message is relayed through its leader as a medium. Second, coercion is more often used than obtaining

consent of the public. Third, in the process of seizing power, the leader appears to listen to the masses but after coming into power, only the voice of the leader becomes prominent.

Propaganda is intimately linked with the public opinion and politics.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demonstrate and elucidate how the public received the state's propaganda activities and if it had the intentions of dominating public opinion through mobilization of the masses and state control.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explicate if the public was only forced or if genuine consent was attained for the propaganda. For the future study, it is important to examine the tr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politics, public opinion and propaganda.

Keywords: propaganda, Nazi Germany, China, North Korea, universality, distinctive characteristics